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홈스쿨링의 이념: 家學을 회상하며

서덕희(徐德姬)* · 지정민(池政敏)**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의 실재를 가학과 비교함으로써 그 이념을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홈스쿨링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주로 자율성의 관점에서 제기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자율성이 발현되는 양상은 "세상을 학교 삼기", "고치 만들기", "시대 흐름 따르기" 등 개인을 떠나 교육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홈스쿨링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교육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교육적 자원과 전통의 결여, 학습 프로그램 및 캠프 소비자로의 전락, 자아관의 혼란 등의 한계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적 전통으로서의 가학이 가진 장점을 '가문'이라는 교육적 관계망 속에서 관계적 자아관을 형성하는 '가의식'에서 찾고, 홈스쿨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율성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타인을 향해 교육적 태도를 자임하는 것, 즉 공공성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자아형성의 일차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교육적 체험이야말로 만인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주요어 : 홈스쿨링, 가학, 자율성, 공공성, 관계적 자아관

* 조선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강사

I. 문제제기

근래에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교육에 관한 대표적 담론의 하나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며 뜨거운 논쟁의 장을 달군 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교육의 자율성을 증시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을 증시할 것인가의 비교적 단순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이 배제된 교육은 일종의 폭력이며 국가기구에 의한 자의적 권력행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 교육내용의 다변화 등 당면한 여러 교육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해결가능하다. 반면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공통의 보편적 지식체계의 전수라는 교육의 근본사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으며, 엄연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선부른 자율성의 강조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을 그 시작부터 불공정한 무한경쟁으로 내몰 위험을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논란은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이성과 사회전통의 대비에 그 사상적 젖줄을 대고 있다. 자율성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반면에 공공성은 공적 전통으로 확립된 제도의 준수와 관련된다. 개인이성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사회전통과 관례를 강조하는가의 문제는 이미 소크라테스 시기부터 명시적 형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개인이성과 사회전통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양자의 개념적 관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철학사상 점차 그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²⁾ 이성은 사회 속에서 계발되고 형성되며, 전통은 이성 또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이성이라면 공적 제도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제도를 새롭게 계승하고 확립하는 데에 기여한다. 만일 이성이 순전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욕망이나 이기심과 구별되는 공평무사한 보편성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공적 제도의 이면에는 이성적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합리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나아가 척결되어야 할 구습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이성과 전통은 진리의 상이한 두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1) 자율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공공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상호 대립적으로 논의가 되어오다가 최근에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양자택일하는 논의보다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신일, 2006; 황규호, 2006; 사토 마사부, 2006). 또한 국가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개념화하기 보다는 공공성 개념 자체를 재개념화 하려는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영호, 2006; 나병현, 2002; 서덕희, 2001; 신차균, 2006; 정민승, 2002; 이종태, 2006). 그러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주장하는 입장도 대체로는 여전히 두 개념을 상호대립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2) 소크라테스는 덕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physis*(즉 이성 또는 본성, 자연)와 *nomos*(즉 전통 또는 제도, 관례)를 대비시켰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논의는 박상철(1998), '도덕은 관례인가: 큰 글씨와 작은 글씨의 비유의 한 해석', 『도덕교육연구』, 한국도덕교육학회, 10집 참조. 여기서는 '자연없는 관례'와 '관례없는 자연'을 대비시키고 제3의 대안적 입장으로서 소크라테스의 견해를 '관례의 형식으로서의 자연'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이성과 진정한 전통은 그 의미에 있어서 이미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도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흔히 특정한 당면 문제의 결정을 둘러싸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 권한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기회 균등을 위한 평준화를 유지할 것인가, 대학교에서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내신반영비율을 강제할 것인가 등등. 자율성과 공공성의 논의를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곧바로 적용하게 되면 각 개념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진다. 더욱이 현실정책 결정에서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자율성이나 공공성의 이념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책의 실시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율성이나 공공성의 이념을 사후적으로 '갓다 붙이는' 양상을 띠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공공성은 서로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두 줄의 선로처럼 끝내 만나지 못하고 병행하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각각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요구하게 되는, 개념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적 관련에 비추어 홈스쿨링의 이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홈스쿨링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주로 자율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김재용, 1999; 이해영, 2000, 서덕희, 2006). 홈스쿨링이 국가관리체제 하의 학교를 벗어나 개별 가정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한 관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홈스쿨링의 실제에 있어서 자율성은 동일한 양태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 관계와 활동이라는 일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자신과 다른 가치를 가진 이들에 대하여 폐쇄적 태도를 보이거나, 거꾸로 주체성을 상실하고 타인과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기도 한다(서덕희, 2008). 아래에서 논의될 바와 같이 자율성의 양상은 그것이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즉, 현재 일부 홈스쿨링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율성과 공공성이 괴리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홈스쿨링의 실제가 보여주는 가능성과 부작용을 자율성과 공공성의 괴리로 진단하고 홈스쿨링의 이념을 양자의 조화로운 통합에서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서 먼저 우리 전통사회의 가학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상 홈스쿨링은 가학이라는 우리 전통의 교육방식의 현대적 표현이다. 홈스쿨링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서구,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최신의 교육경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³⁾ 물론 전통사회의 가학은 유학적 교육내용과 이념, 관학과 사학의 전통적 교육제도,

3)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 자신들이 하는 교육활동을 굳이 홈스쿨링이라고 이름붙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부모들은 "outschool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아예 "home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분제 사회 등 당시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출현하고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서구적 교육 제도를 맥락으로 삼는 오늘날의 홈스쿨링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학은 '가정에서 자녀의 지적·정서적 교육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홈스쿨링과 완전히 동일한 아이디어에 기초해 있다. 설령 홈스쿨링의 참여자들이 전통 가학을 계승한다는 의식이 전무한 채 오히려 서구의 홈스쿨링운동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고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가학의 이념과 홈스쿨링 사이의 내적 연관은 부정될 수 없다.

가학과 홈스쿨링을 비교하는 일은 두 교육활동이 처한 시대와 사회의 차이로 인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될 수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오히려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두 시대 및 사회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을 더욱 명료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학은 가문이나 동족 부락의 풍부한 교육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고, 많은 가정에서 나름의 특색을 지니는 학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학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학을 통해 또는 가학을 공부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을 가문의 일원으로 파악하였고, 이것은 향후 개인이 사회나 국가에 참여하는 데에 일정한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 어쩌면 오늘날 홈스쿨링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가학이 가진 장점을 현대의 여건 속에서 재창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요컨대, 가학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의 통일이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왜 홈스쿨링의 이념이 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가학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통 사회의 가학과 관련된 1차 문헌과 그에 관한 연구물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홈스쿨링의 실제의 경우, 서덕희(2006)의 학위논문을 위한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 자료들을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다시 분석하였다.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 초기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이 가학과 홈스쿨링의 실제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홈스쿨링의 이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졌다. 즉 본 연구는 가학과 홈스쿨링이라는 두 교육의 실체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 홈스쿨링이라는 실체를 이끄는 이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율성과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둘 간의 관계로 홈스쿨링의 이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서덕희는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적어도 3년 이상 홈스쿨링을 실천한 서른 가정을 직접 만나 적게는 한번에서 많게는 열 번에 이르기까지 면담을 하였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캠프 등에 참여하여 홈스쿨링 가정들의 교육활동을 관찰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는데, 주요 참여가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별가정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그 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본 논문은 먼저, II장에서는 전통사회의 가학의 특징을 분석한다. 가학은 일정한 교육방법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또한 포함하며 '가의식'(家意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자아관의 확립에 기여한다. III장에서는 홈스쿨링의 실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홈스쿨링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교육적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교육적 자원과 전통의 결여, 학습 프로그램 및 캠프 소비자로서의 전략, 자아관의 혼란 등의 한계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IV장에서는 홈스쿨링의 이념적 지향을 자율성과 공공성의 통일로 제시하고 가학이 주는 시사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논의와 관련지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그것이 홈스쿨링 더 나아가 교육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가학의 특징

만일 전통사회에서 가정은 오늘날의 가정에 비하여 활발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수긍한다면, 통념상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전통사회의 학교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학교는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못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재정의 고갈이나 전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조선후기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당시의 이른바 '관학의 부실'은 한편으로는 서당 등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의 확대를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서 가학의 활성화의 배경이 되었다. 둘째로 전통 교육과정의 성격상 가정 내의 학습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과는 그 자체가 윤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가정학습에 유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교과는, 현대의 교과와는 달리, 순전히 윤리적 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지적 확일성'은 가정 내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일 때 오늘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사태의 귀결로 된다. 공교육제도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사설학원이 넘쳐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의 종류와 양이 가히 폭발적인 수준에 달해 있는 현실에서 가정교육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전통 가정의 강력한 교육적 역할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이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가정교육이 활발하였다는 것은 결코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통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부진하였는가

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학교교육의 부진이 곧 활발한 가정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부진은 가정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가정교육이 쇠락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간접적인 배경에 불과하다. 또한, 위의 견해에 제시된 전통사회의 교육과정의 확일성은, 만일 누구나 그것을 가르치기 쉽다는 의미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 중심적인 편견에 다름 아니다. 전통적 교과는 윤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천윤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탐구에 해당한다. 전통적 교과는 단순히 이리이러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이상학적, 철학적 탐구의 성격을 띠며, 이 점에서 오히려 현대의 교과에 비하여 전문적 학자와 교사의 식견을 필요로 한다.

전통사회에서 가정이 강력한 교육적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학교제도의 미비나 교과의 확일성이 아니라 전통적 가정관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전통적 가정관은 현대의 가정관과는 달리 '가계(家系)의 계승'이라는 대명제 속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과 교육이 하나로 녹아들어있다. 출산, 양육,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교육이다. 그것은 전통적 가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신적, 문화적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통사회에서 각 가정은 오늘날의 핵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풍부하고 진지한 가풍과 가문의 유산 속에서 존재하며, 가계를 잇는다는 말 속에는 그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가의식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포함되어있다. 반면에 현대의 가정관은 급변하는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종의 무질서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현대에는 가족의 기능을 인구생산, 자녀의 보호와 관리, 경제생활, 사회화, 애정적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것을 성 기능, 경제 기능, 보호 기능, 오락 기능, 종교 기능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각 기능 사이의 관련을 설명하지 못하며, 여러 기능들 가운데 본질적 기능을 적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이것은 가정의 본질과 가정의 기능을 구분하지 못한다. 현대 가정관의 무질서상태는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현대의 가족이론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가학은 전통적 가정에서 가계의 핵심을 이루는 교육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가학은 '집에서 배우다'는 동사적 의미와 아울러 '집에서 배우는 집의 학문'이라는 명사적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주로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집안의 어른에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초등교육의 경우에 이러한 의미의 가학이 강조된다. 반면에, '집의 학문'으로서의 가학은 '가학을 지킨다', '가학을 계승한다', '가학을 전한다'는 식으로 동사와 결합하여 흔히 사용된다. 이 때의 가학은 그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의술 등 독특한 학문

5) 『仙源記夢說』 跋. 子孫之能守家學難矣. 『朝鮮王朝實錄』 肅宗44年 2月 25日. 集又承文元家學 如子思之於孔子.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3年 3月 29日. 臣之亡師故臣成渾 以名父之子 世居林泉 而傳其家學.

의 내용을 의미한다. 동사적 의미로서의 가학이 주로 초등교육의 수준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명사적 의미로서의 가학은 고등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 사실상, 현대의 홈스쿨링과 비교하여 가학을 논의하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집의 학문'으로서의 가학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정마다 대대로 이어져오는 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대 가정의 상황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학문으로서의 가학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劉永翔 등은 『家學淵源』에서 중국 전통사회의 가학의 64가지 사례를 들고 있다. 그 중 첫째 장은 현대의 사학가 사마담과 사마천 집안의 가학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달아 당대 역사학의 최고봉을 이루었고 그것은 가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로 『사기』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다른 사례들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학문의 발전과 전승이 오로지 가학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전통사회에서 가학의 지위는 상당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가학으로는 강희맹, 이황, 김장생, 윤증, 윤선도 등의 경우가 연구된 바 있다.⁶⁾ 가학을 전수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들은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항상적으로 접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행운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일반적 수준의 사대부 집안에서 가학을 형성하고 계승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 문집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학'이라는 용어는 문집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때 가학은 '5세에 가학을 시작하였다'⁷⁾거나 '가학을 하였고 스승을 구하지 못하였다'⁸⁾는 식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였다는 소극적 교육방법으로서의 가학뿐만 아니라, 그 집의 고유한 학문으로서의 가학의 의미를 가진다. 가령 이단하(李端夏)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단하는 현종대에 출사하여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고 민생을 위하여 사창의 실시 등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나이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형제들이 모두 부모님의 학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학의 법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주연(白洲連)의 가풍을 매번 보고 좋게 여겨 우리의 가학보다 낫다고 여겼다. 부모님이 세상을 뜬 다음에야 그 가학의 가치를 알아보고 일찍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자책하였다. 지나치게 심려하여 형제들이 모두 마음의 병

6)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경안(1999), 강희맹의 가학과 농업경영론, 『실학사상연구』, 무악실학회, 10·11집. 권오봉(1990), 퇴계의 가학과 사상형성,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6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2006), 『명재 윤증의 학문연원과 가학』, 예문서원. 황의동(2003), 명재유학의 가학적 연원에 대한 연구,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33집. 정운섭(2003), 녹우당 해남윤씨가의 가학과 예술의 성격,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참조.

7) 『東州先生文集』 卷6. 五歲而就家學.

8) 『貞齋逸稿』 貞齋先生逸稿 卷2 家學也 未得師.

을 얻었다⁹⁾ 여기서 가학은 널리 알려진 최고의 유학자 가문만 보유하고 있는 예외적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양반가라면 누구나 가학을 가지려고 하고, 또 상당한 정도로는 이미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욱 발전하거나 쇠퇴하는 가변적인 교육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단하의 가학은 당시에 이단하를 비롯한 후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의 것이었지만, 뒤늦게 후손들은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위의 이단하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는 어릴 적부터 착실히 가학을 배우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가정지학(家庭之學)을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전통 가학의 핵심적 특징은 자신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이 가학의 사명감, 즉 가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개인은 추상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중의 서열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가치가 파악되는 관계적 자아를 형성하였다. 즉 전통사회의 개인은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이기보다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였다.¹⁰⁾ 가의식은 이러한 전통적 자아관의 발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이 '한결같이 가학을 삶의 준칙으로 삼았던 것'¹¹⁾은 가의식이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판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가학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 특이한 정서상태, 즉 가의식은 학생편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사편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다. 부모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은 가문에서 어른으로서의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의 하나를 가학의 전수에서 찾았다. 그들은 때로 부모이기도 하고, 조부모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하고 동족 부락내의 먼 친척이기도 하였다. 특히 관직에 나가지 않은 아버지가 가학의 전수에 힘쓰는 경우가 많았고, 조부모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가학에 전념하는 경우도 많았다.¹²⁾ 그러나 가학의 책임은 특정인이 전담하기 보다는 집안의 어른 모두가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분담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학의 일차적인 책임자를 심적, 물적으로 지원하고 가문의 자녀들이 그로부터 충실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처럼 가학은 교사와 학생의, 문중 전체의 가의식에 기초하여 일사분란하고 목적의식적인 교육행위로서 수행되었다.

'의사가 삼대를 잇는 자가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다'(醫不三歲 不食其藥)라는 속담이 있다. 이상의 논의는 이 속담에 담긴 가학의 의미를 한편으로 긍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정한다. 먼저, 긍정하는 것은 교육내용으로서 가학이다. 위의 속담에도 시사되듯이 가학은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학문과 학풍을 가리킨다. 부정하는 것은, 가학이 의술과 같은 특별한 중

9) 『久堂集』 九堂先生文集附錄 卷3. 兄弟皆不知先公之學 不喜吾家之法 與白洲連家 每見彼家風流而心喜之 以爲勝於吾家 及先公下世後 始知家學 自傷其不早知 過用心力 兄弟皆得心疾.

10) 오영교, 2005, p. 233 참조.

11) 『慎獨齋先生遺稿』 卷15. 一以家學爲準則.

12) 『息庵遺稿』 息庵先生遺稿遺. 及其晚年 居閑處靜 唯以奉承家學訓誨子弟爲樂.

류의 기술에만, 그리고 선택된 소수의 집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가학은 다양한 수준차이를 보일지언정 결코 예외적인 가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반 사대부 가문이라면 어떤 가문이든지 나름의 가학을 보유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였다. 가학은 경우에 따라 고유한 유학적 해석방식일 수도 있고, 일상의 몇 가지 규범의 준수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가학을 보다 지적으로 풍부하고 올바른 것으로 만드는 일은 모든 가정이 추구하는 이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방법으로서의 가학이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 사실은 그 교육방법으로서의 가학을 통해서 교육내용으로서의 가학이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계승되고 지켜졌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통사회의 가학은 분명한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한계는 현실적으로 사대부가 아닌 일반 서민의 경우에 가학은 그다지 발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신분제라는 당시의 조건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각의 개별 가학 사이에 종종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서로 정치적, 학문적 입장을 달리하는 경쟁자들은 상대방의 가학에 대하여 서로 '가학이 사악하다'거나 '가학이 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¹³⁾ 개별 가학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와 보편적인 판단기준의 정립은 가학의 발달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전통사회의 가학은 차별적 신분제도에 기반한다거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가학의 의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새로운 조건하에서 가학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전통사회의 가학은 정신적, 문화적, 학문적 단위로서의 가계의 본래적 의미를 밝혀 준다. 오늘날 흔히 지적되는 '가족의 해체'는 주로 특정 성원의 공간적 부재나 상호친밀감 및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에 앞선, 근원적 해체는 이미 현대인들이 전통사회의 가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문 또는 가정의 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 그 안에서 확장되는 자아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교육의 추진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생물학적 단위로서의 가정은 그러한 값진 자원을 역사적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가정교육을 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홈스쿨링의 실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13) 『朝鮮王朝實錄』 純祖 30年 10月 28日. 噫 彼鶴秀 以天生妍妖之性 襲乃叔凶逆之心 貪進冒利 自是家學. 『宋子大全』 卷91. 朱子嘗與東萊論呂氏家學之不正.

Ⅲ. 홈스쿨링의 실제

집의 학문으로서의 전통적 가학은 현대적 관점에서의 홈스쿨링과 분명 연속성뿐만 아니라 단절성을 지니고 있다. 가학과 홈스쿨링 모두 집(家)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그리하여 부모의 교육적 권위가 다른 어떤 방식의 교육과 달리 강조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띤다. 그러나 한편, 확대된 혈연관계인 가문이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유지하였던 시대적 맥락이 가학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던 반면, 현대의 홈스쿨링은 공교육제도가 사회에 안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축소된 혈연관계인 핵가족에서 출발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요컨대 현대의 홈스쿨링은 전통적 가학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간에 등장하기 시작한 홈스쿨링은 개별 가정마다 서로 다른 계기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계기에 있어서 학교, 크게는 근대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에 근거하여 도시적인 삶을 버리고 온 가족이 귀농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변화를 뒤쫓아 가지 못하는 공교육제도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부모가 직접 자녀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가정도 있다. 방식에 있어서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교사로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제시만 할 뿐 자녀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비가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홈스쿨링의 실제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서덕희, 2008).

그런데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처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풍부한 교육적 관계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였다. 실지로 이 문제는 홈스쿨링을 비판하고 의문시 하는 사람들의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종류와 수준의 교과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녀가 배워야 할, 혹은 배우고 싶어 하는 교과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는 가학이 확대가족인 가문이라는 혈연, 교육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이었던 반면, 홈스쿨링은 그러한 공동체가 상실된 상태에서 개별 가족이 새롭게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전통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홈스쿨링과 가학의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학의 경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 반면, 홈스쿨링의 경우 그 내용과 방법 모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대상이

된다. 아닌 게 아니라 홈스쿨링 자체가 학교교육이라는 사회적 관례에서 벗어난 선택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례를 따르기보다는 자녀의 자발적인 선택과 판단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의 대비 속에서 홈스쿨링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의 홈스쿨링은 전통과 글자 그대로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지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은 스스로를 “개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쿨링이 근거하고 있는 자율이 전통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하는 것은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어떤 관점에서건 교육에 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 기준에 따라 학교교육을 비판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는 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떤 교과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좋을지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한다. 학교교육이라는 패턴화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율”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 가정의 교육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통, 혹은 전통의 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속해 있는, 혹은 형성하고자 하는 전통은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는 사회적 관례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홈스쿨링이 어떠한 전통을 형성하고자 하는지 혹은 전통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¹⁴⁾ 아래에서 보게 될 바와 같이 그들이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전통은 가학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가학이 터하고 있는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더 나아가 확대된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크게 달랐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정이 전통을 형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개척자”로서 걷기 시작한 그들의 길은 학교교육이라는 사회적 관례 속에서는 얻기 힘든 교육적 체험을 되살려 “세상을 학교 삼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폐쇄적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시대 흐름”을 좇아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각각 “세상을 학교 삼기”, “고치 만들기”, “시대 흐름 따르기”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각각 교육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

14) 이 연구에서 활용된 면담 및 참여관찰 자료는 서덕희(2006)의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서덕희는 이 연구에서 한국에서 적어도 3년 이상 홈스쿨링을 실천한 서른 가정을 직접 만나 적게는 한번에서 많게는 열 번에 이르기까지 면담을 하였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캠프 등에 참여하여 홈스쿨링 가정들의 교육활동을 관찰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는데, 주요 참가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개별가정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자료수집을 함으로써 그 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심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1. 세상을 학교 삼기

부모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아이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곳에 올바른 삶의 진리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완성해 갈 것이다. 결국 그렇게 커서 부모가 된다. (1999년 한 부모의 홈스쿨링 일기에서)

“심리적으로는..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농가에 가서 붙여 가지고 일을 도와주면서 지낼 수도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녀볼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들이 막 뭉게뭉게 피어올랐는데 사람들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달랐어요.. 한 마디로 선생님 하나에 3,40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 3,40명이 나 한 사람에게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하는 방식이었지요” (2004년 1월 한 아이와의 면담자료에서)

1990년대 후반 홈스쿨링을 시작한 가정들 중에는 홈스쿨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생협운동, 환경 운동 등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의 세속성을 비판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물론 자녀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절실히 체험한 경우도 있었다. 그 계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학교가 결과의 평가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경쟁문화를 재생산한다고 보고, 자녀의 교육적 성장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함께 그 성장의 길을 함께 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적 관계를 자신의 가정에 한정짓지 않고 다른 홈스쿨링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확대하는 등 “상생”을 지향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세상의 모든 관계를 교육적 관계로 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홈스쿨링은 “세상을 학교 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들의 교육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는 교육”이라는 말 속에 잘 드러난다. 부모에게 자녀가 배웠으면 하는 가치나 지식, 혹은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가치나 지식, 태도를 체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관은 그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느꼈던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지로 홈스쿨링의 과정을 통하여 체감한 것이기도 하였다. 자녀와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의도와 상

15) "세상을 학교 삼기"라는 말은 실지로 대안교육연대에 소속된 홈스쿨링 부모들의 모임인 "세상을 학교 삼는 부모들의 모임"이라는 말에서 빌려 온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세상 어디나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관없이 자녀에게 배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가르침의 일상성은 홈스쿨링 초기에 부모들이 자신의 부족한 교육적 소양을 비관하며 “자학의 길”로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홈스쿨링을 포기하고 싶게 하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이 자신들이 “가리키는” 대로 자녀들이 늘 따라온다는 뜻은 아니었다. 홈스쿨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예상을 뛰어넘어 성장해 나갔다. 자녀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성장해 나갈 때 부모들은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였는데 이는 자녀를 더 이상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 두려움은, 한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자녀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부모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자녀의 성장의 힘을 “과소평가”한 결과였다. 자녀가 성장하는 힘을 막지만 앓는다면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로서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기 마련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모들은 자신도 자녀와 함께 “공부의 길”을 감으로써 자녀와 함께 성장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어머니는 이를 “아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 한다”고 표현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위와 같은 교육적 관계는 개별 가정에 국한되지 않았다. 세상을 학교 삼는 가정들은 교육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녀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자원을 위해서도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좁게는 작은 시할아버지와 같이 먼 친척어른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세대를 넘어서 “마음이 가까운 사이”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멀게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생각이 닮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집을 열어 “홈스테이”를 하거나 아이들만 보내어 그 집에서 집짓기, 차농사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초기에 어쩔 줄 몰라 좌충우돌하거나 교육적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서로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그들에게 가치관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상을 학교 삼는 가정들은 교육을 중심으로 자녀와 부모, 그리고 가정을 뛰어넘은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로 형성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독교 홈스쿨링을 하는 한 부모는 “홈스쿨링이 제대로 되려면 삼대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7년간 홈스쿨링을 한 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홈스쿨링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들이 명시적으로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전통의 형성 과정에 있다. 그들의 전통은 기독교적 신앙이나 생태주의, 반자본주의적 삶 등 가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교육적 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어떤 깨달음에 근거한다. 그 깨달음이란 부모든 자녀든 자신이 고립된 개별적 자아로서

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관계적 자아라는 사실이다. “세상을 학교 삼는다”는 말, “서른 명이 넘는 스승이 자신에게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말은 배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 배움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낸다.

2. 고치 만들기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저 기본적으로 어렵פות한 것만 있지요. 아직은 모르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사회에 보내는 그런 경험이 우리로서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어렵פות하지 않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순도 백프로여야 한다는 것. 화학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99.99999%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9가 열 개 이상 가도 0...00001 때문에 화학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순도 100프로로 강하게 우리 가치관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야지만 세상에서 강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어렵פות하게 그냥 이것저것 뒤섞여서는 흐릿한 빛을 비추어서는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렵פות하지만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2004년 6월 기독교 홈스쿨링 캠프에서 한 아버지와 면담자료에서)

1990년대 후반 홈스쿨링을 시작한 가정들은 학교교육의 비교육적인 측면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더러는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라기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상 혹은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홈스쿨링을 실천하는 가정들도 없지 않았다. 이들이 학교교육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특정한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시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들 역시 강력한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것의 계승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자녀의 자율성보다는 “이것저것 뒤섞이지 않은” “순도 100%”를 위하여 자신의 공동체 밖의 오염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고치 만들기”와 다르지 않았다.¹⁶⁾

고치를 만드는 부모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혹은 부모가 환경을 조성해주는 대로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절대적이라고 보

16) “고치만들기(cocooning)”는 애플(Apple, 2000)이 미국의 기독교 홈스쿨링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의 비판의 기준은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홈스쿨링 가정들이 “고치 만들기”를 통하여 신보수주의적 사고와 문화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홈스쿨링 가정들이 증가함으로써 사람들은 “인정의 정치학(politics of recognition)”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분배의 정치학(politics of distribution)”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았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른 대안학교를 세운다고 해도 부모가 직접 “주도권”을 행사하는 홈스쿨링보다 그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는 부모도 있었다. 한 아버지의 노골적 표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세뇌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치 만들기의 성격을 지닌 기독교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한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어떤 교육방법보다 부모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홈스쿨링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자녀는 부모가 “훈련하기에 달려있다”. 훈련을 잘 하여 부모들의 가치관에 따라 “포메팅”이 되고 나면 스스로 공부하도록 훈련하여 “학교공부”도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훈련을 통하여 자녀의 가치관, 자아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린 시기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포메팅”된 후에는 부모의 가치관을 뒤늦게 강요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 역시 홈스쿨링이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 방법이 “순도 100%”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도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순종”이 홈스쿨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다.

고치 만들기 가정의 부모들은 “또래집단과 놀지 않으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의문에 대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같은 공동체 내에 속해 있지 않은 또래들과는 “단절”시켜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때로는 같은 공동체 내의 또래들조차도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내부에서도 “치열하고 험악하고 깃잡고 경쟁하고 그런 곳”인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 유형이 반드시 종교를 기반으로 한 홈스쿨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의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여 다른 가족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아이들은 그 부모의 “관계에 갇힌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과정”에 있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쉬이 여기는 식의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 아버지의 표현을 빌면, “똑같은 놈들 속에서 똑같은 놈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고치”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스스로가 너무 잘난 나머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여” 부모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는 무시하기도 하였다. 부모 역시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가정의 부모들에게 “삶의 목표까지 함께 하기”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분명 독특

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통이 고치 밖의 사람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3. 시대 흐름 따르기

분당 작은 학교 그 언니도 있었고, 거기는 그 쪽은 새로운 유학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리고 그 언니 메일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결국은 거기서도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리고 이제는 그게 별로이니까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는지 그리고 윤구병 변산 공동체도 보내고..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두 아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는. 그 언니의 고민은 너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럽다 나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참 회한하게 아이는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들은 끊임없이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결국은 이제는 유학 가라 다 해봐도 그렇게 되는..(2005년 8월 한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대학을 다닌 고학력 중산층이 많았다.(서덕희, 2006: 96-100) 이들 중에는 홈스쿨링을 “국가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로부터의 주체선언이자 독립선언”이라고 보고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집단성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열어두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자녀와 함께 성장의 길을 동행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그러한 교육적 체험 자체보다는 “창의성”, “자기주도성” 등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홈스쿨링을 시작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학교교육에 따른 “틀에 박힌 사고”를 비판하고 “창의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한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홈스쿨링을 시작하거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에 관한 부모의 가치기준이 분명하지 못해 막연히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으려는 가정도 있었다.

이들은 교육을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상에 맞게 자신을 독자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녀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모든 아이들이 몰입의 대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몰입하려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가령, 게임에의 몰입처럼 중산층적 기준에서 벗어난 자녀의 행동은 인정해 주지 않았다.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흥미나 욕구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그 판단 역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기 보다는 외재적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관되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하버드대학생의 삶”,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

공한 CEO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모델로 하여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막연히 자유주의적 성향만을 가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에 자녀를 맡겨 “캠프소비자”, “프로그램 소비자”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부모들은 “자녀 성공은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종래 중산층 부모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기준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 부모들은 의식적으로는 정치사상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자녀의 “자발성”,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부모들의 삶은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주의”에 가까웠다. 한 부모의 표현처럼 그들은 학교에서 성공하는 “상대적 경쟁력”보다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는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든 “일류”가 되길 원했다. 실제 삶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도 자유주의보다 보수주의적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 “스스로 하고 실패하고 겪고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지로는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깨지기 전에 막았다.” 이 경우 자녀들은 함께 있을 때에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지만, 부모의 “검열”이 사라진 뒤에는 부모가 부정하는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표출했다. 이중적인 부모들의 태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다.

이들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관이 일관되게 자녀에게 제대로 발현된 경우 아이는 “자리관리”를 잘하는 “엘리트”를 지향했다. 가령, 홈스쿨링을 하면서 1년간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한 아이의 경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부모들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느니 외국대학으로 유학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부모의 기준에 맞는 “자기관리”에 실패한 자녀의 경우는 오히려 다수의 또래들이 가는 길을 원하였다. 때로는 가정으로부터 “자립”할 것을 바라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몇몇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활동이 있어도 지원을 해주기 어려웠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를 강조하고 “스스로 살아나갈 힘을 기르는 것”을 홈스쿨링의 목표로 삼았으나, 부모의 삶이 생존에 얽매이다 보니 자녀들 역시 매일 매일의 생존을 위한 전략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대 흐름을 따르는 홈스쿨링 부모들도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관계 형성 방식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달랐다. 경제적 자본이 있는 부모들은 개인교습이나 학원수강, 각종 청소년 대상 캠프 및 아카데미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소비”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연계를 통하여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빌면, “다 만들어놓은 열매를 따 먹는” 데 관심이 많을 뿐 자신이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간혹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심하면 “우선순위가 자기 자

식"이다 보니 다른 가족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만 이기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배경에 놓인 가족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집단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선한목자 콤플렉스"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었다. 요컨대, 그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약적 관계로만 존재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세상을 학교 삼기", "고치 만들기", "시대 흐름 따르기"로 정리한 홈스쿨링 유형들은 가문이라는 혈연·교육 공동체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공교육제도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주체적으로 교육활동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교육적 자원의 면에서 홈스쿨링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치체험을 한 교과만을 중심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교육적 자원은 부족하게 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교육적 관계를 사회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교육적 소양의 면에서 부모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체감하게 된다.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 역시 자녀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벗어나 자녀와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야 한다. "혼자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 "혼자 깨닫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래 사례의 이야기는 홈스쿨링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진짜로 혼자 한다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나 혼자서 뭐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같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나 혼자 아무리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혼자 깨닫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해나갈 때 즐거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차단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힘들고 다양한 분야들을 알아야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바탕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길을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내 위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수학과 과학 분야는 나도 싫어하고 나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준 거 같아요. 실험을 하는 데를 데리고 간다거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야할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할지 그것을 다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2002년 12월 한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가정을 벗어나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적 자원을 찾아나가야 하는 문제는 홈스쿨링을 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 문제에 대하여 제도가 그은 경계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은 경계조차 벗어나 "세상을 학교 삼는" 부모가 있는 반면, "고치 만들기"처럼 부모가 그은 경계 내에 자녀를 가두기도 하고,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듯 "프로그램 소비자" 혹은

“캠프 소비자”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아래 논의될 바와 같이 현대 홈스쿨링이 보여주는 이러한 한계는 개별 가정의 자율성이 드러나는 양태가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해결이 될 수도,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IV. 홈스쿨링의 이념: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가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회인 동시에 장차 본격적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적 보금자리이다. 이러한 중간지대적 성격, 즉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가정의 특징은 그 자체가 홈스쿨링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홈스쿨링이 처한 혼란의 모태이기도 하다. 홈스쿨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통일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띠겠지만, 홈스쿨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또는 주체성이 결여된 채 사회적 유행을 좇아 소비하는 위험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공공성과 자율성의 의미를 차례로 검토하면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를 통하여 홈스쿨링의 이념을 규정하기로 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그것이 논의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신차균, 2006; 이종태, 2006). 교육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규범성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포괄적으로 말하여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은 누구에게나 가치로운 것이니 누구나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비판적 교육과정사회학자들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 공통의 교과 또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자체가 공적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이 보편적, 공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놓인 전통과 문화 속에서 가르치고 배울 교과를 구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교육의 가치를 누린다. 이와 같이 교육활동은 그 교육내용의 선택과 구성과 실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공적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근대공교육제도의 이념적 측면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교육의 공공성을 잘 드러낸다(나병현, 2002). 근대공교육제도는 만인이 교육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교육의 대상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며,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대량으로 배출되며, 종래 귀족이나 제후 또는 소수의 양반층에 한정된 학교운영권을 국가의 감독 하에 각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국가적 규모로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근대공교육제도의 이러한 특징은 교육

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소망실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러한 이념은 확일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실제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확일성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경우에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의 자율성과 대척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국가관리체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가치 향유 자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종종 비판받는 것이다.

한편,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위를 이성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의 맥락에서 자율성은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을 결정하고 교육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 혹은 가정, 학교 등 사회기관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근대 이후 국가관리 체제에 의하여 소위 교육기관들이 지원과 관리뿐만 아니라 확일적인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이를 문제시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입시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기관의 자율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강경근, 2006; 김신일, 2006; 신현석, 2006). 그러나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각 개인의 이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며 교육이라고 하는 활동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율성이 가장 근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적 제도의 관리와 통제 없이 자녀와 부모의 개인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홈스쿨링은 교육의 맥락에서 자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홈스쿨링을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주의할 것은 홈스쿨링의 각 유형에 따라 자율성의 양상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 그리고 홈스쿨링의 자율성은 결코 공공성을 배제한 자율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III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관리체제 하의 학교교육을 벗어나 가정마다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해나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모든 홈스쿨링 가정들이 공통적이지만 실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발현되는 방식은 유형마다 매우 다르다. 부모편의 “가리키는 활동”을 중시하지만 자녀의 배움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자녀의 능동적 성장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녀의 자율성이 아닌 부모만의 자율-심지어는 독단-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부모편의 “가르치는” 힘을 중시하고 자녀의 “자율”보다는 “순종”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와 동일한 가치관의 “재생산”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는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교육적 관계 내에서의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지향하는 “자율”이나 “자립”은 부모의 한계 내에서의 “자기 관리”이거나 생존 차원에서의 “자립”에 그치기도 한다.

홈스쿨링의 각 유형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의미의 “자율”은 자율성이 논의되는 맥락을 세밀

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세상을 학교 삼는”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자율성이란 가르치는 자의 자율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자율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의 자율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자율 또한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상대에 비추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노력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부모가 그랬듯이 자신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교육적 환경이 되며, 자녀에게 그랬듯이 타인의 삶은 나의 교육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 한 명에 서른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스승이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부모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각 개인이 살아나가는 삶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타인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을”이라는 말의 지역적 한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는 관계적 자아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다. 요컨대, 한 사람의 교육적 성장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는 교육적 환경으로서의 책임감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요구하는 독특한 깨달음이다.

교육이 개인의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자율성은 무한대의 타인을 향하여 교육적 태도를 자임(自任)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세상을 학교 삼는” 홈스쿨러들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스승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여, 무한대의 타인에 대하여 교육적 책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가치를 누구나 향유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태도, 즉 교육의 공공성의 본질이 아닐까?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로운 것이며 그것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은 재화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국가와 같은 관리자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향유되는 활동이다. 물론 그러한 활동을 가능도록 하는 조건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결국 개별 주체의 자율성에 의하여 향유된다. 그리고 그 자율적 참여가 배움과 가르침의 열정을 따라 혈연, 지연, 학연은 물론이고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만인을 향하게 될 때에 교육의 공공성은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교육의 자율성의 진정한 실현은 교육의 공공성의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거꾸로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을 때 교육의 자율성은 실현 가능한가? 타인을 나의 교육적 환경으로 받아들이며 배움에 임하고, 모든 타인의 교육적 환경으로서 나의 현재를 성찰하고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육의 자율성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실지로 “고치 만들기” 유형은 부모와 자녀의 재생산적 관계에 기초하여 “생각이 닮은 사람들”간에

만 연대를 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통한 가치관의 재생산이 최대의 목적이며 공통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간의 연대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치관 자체를 성찰할 계기는 주어지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녀와 성장의 길을 함께 간다는 식의 성찰적 관계를 맺기 보다는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부모들의 “순도 100%”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이들은 또래들과 단절되며, 부모의 기준으로 친구들을 판단한다. 부모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의 한계”에 갇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을 구성해 나갈 자율성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다.

“시대 흐름 따르기” 유형의 홈스쿨링은 이런 점에서 그 극단을 잘 보여준다. 부모들은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체험을 “가리키거나” 함께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자녀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를 바란다. 극단적인 경우 “프로그램 소비자”, “캠프 소비자”라는 말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외적인 기준에 휘둘러 사회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찾아다님으로써 자녀의 삶을 우연성에 내맡기게 한다. 때로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몰입할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찾지 못하고 결국 자율성을 발휘할 계기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의 길을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지 못할 때 자녀는 어떤 것이 가치로운지 방향 등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성에 휘둘린 방향만 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의 공공성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시간적 관계를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다. 다만 교육의 맥락에서 공공성이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원심적 태도를 개념화한 것이라면, 자율성은 주체의 능동적 판단에 근거한 구심적 태도를 개념화한 것이라고 좀 더 그 성격을 구분하여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가 더 강조되는 맥락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태도가 조화로우려야 비로소 나,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교육에 있어서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원심적 태도로서의 공공성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실현하기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조차도 자녀의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원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교육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타인의 배움에 응답하는 일은 자신을 “학대의 길”로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희생”으로 생각되기 쉽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 혹은 관례로서의 전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학은 시대적으로 계급과 혈연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개별 가문들이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그러한 공공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통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홈스쿨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학에서 한 개인은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공동체이자 학문·교육공동체인 가문 속에서 자신의 배움을 이루어나가고 동시에 가문의 일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수행하는 관계적 자아였다.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교사자격증이 없이도, 학교라는 제도 속에 편입되지 않고도 가문의 일원으로서 모든 이들은 일상적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망 속에 살아가며 성찰하고 배우고 또 가르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중간지대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체득한 개인은 가정 밖의 사회에서도 역시 관계적 자아로서 교육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V. 결론

이종태(2006)는 이제까지 교육의 공공성이 논의된 담론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국가관리체제 하의 공교육과 시장주의의 이분법적 대비가 첫 번째 단계라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선 제3의 시민사회적 공공영역을 새로이 설정한 것이 두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교육의 맥락에서 교육의 본질로서의 공공성을 개념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세 번째 단계로 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국가관리나 평등은 필요조건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의 형식적 조건이라면, 교육의 목적과 주체의 의도는 충분조건인 동시에 내용조건이라고 정리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요구되지만 교육 주체가 가지는 이념과 태도 등의 윤리적 차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하여 타자의 존재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과정을 “공공성으로의 교육”으로 규정한 이은선(2003)의 공공성 개념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교육의 공공성이란 제도적인 조건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현 여부는 바로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태도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홈스쿨링의 실재를 통하여 자율성뿐만 아니라 주체의 태도로서의 교육의 공공성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자율성과의 관계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

물론 홈스쿨링은 다른 교육적 관계와 달리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독특성으로 인하여 이 연구 결과는 한계를 지닐지 모른다. 그 독특성은 교육권은 친권이자 자연권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드러나며,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두 관점은 각각 홈스쿨링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가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반드시 사적인 영역 혹은 혈연관계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만 개념화될 수 없다. 오히려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간과 공간이자 일상적 삶을 교육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개념화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실지로 현대 홈스쿨링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실현되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고치 만들기” 유형은 애플(Apple, 2000)이 일찍이 비판하였던 바와 같이 소위 신보수주의적인 의미의 “인정의 정치학(politics of recognition)”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할 뿐 “분배의 정치학”을 도외시하는 시민을 키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시대 흐름 따르기” 유형의 가정들은 공동체주의자인 맥킨타이어가 “단절된 선택”, “영원한 개방성”이라고 표현한 근대의 “절연된 자아”를 삶으로써 체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심성보, 1995: 172, MacIntyre, 1981: 32). 이 “절연된 자아”는 가치로운 활동을 체험할 전통으로부터 소외되고 결국 타인을 생존을 위한 경쟁의 대상이거나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적 관계로만 파악하는 시장경제적 의미의 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 의한 교육”(Illich, 1970)이라는 태도를 가정에서부터 함양하지 않으면 타인을 배타시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민들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실패는 단순히 학교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전체에 그러한 태도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통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교육적 관계 맺음을 통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체험하고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소위 초기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잇는 가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전통이 생성되고 계승될 수 있는 영역이다. 전통 가학의 이념에 비추어 말한다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가정이 “세상을 학교 삼는” 가정들처럼 가학의 연원(淵源)이 되겠다는 “개척자”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모든 이들이 교육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생성은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仙源記夢說

東州先生文集

貞齋逸稿

久堂集

愼獨齋先生遺稿

息庵遺稿

宋子大全

강경근 (2006).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개정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35-44)

고영호 (2006). MacIntyre의 공동체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철학 제29집: 1-24.

권오봉 (1990). 퇴계의 가학과 사상형성,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68집.

김신일 (2006).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25-32)

김재웅 (1999). 홈스쿨링의 교육적·정치적 의미. 교육학연구 37(4): 255-274. 한국교육학회.

김재춘 (2006).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무엇을 위한 자율성과 공공성인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45-53)

나병현 (2002).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이념의 재검토, 황원철, 김성열, 고창규 편(2004). 공교육-이념·제도·개혁. 서울: 원미사.

박경안 (1999). 강희맹의 가학과 농업경영론, 실학사상연구, 무악실학회, 10·11집.

박상철 (1998). 도덕은 관례인가: 큰 글씨와 작은 글씨의 비유의 한 해석, 도덕교육연구, 한국도덕교육학회, 10집.

사토 마나부 (2006).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재구축으로-세계화시대 일본의 학교개혁-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1-24)

서덕희 (2001). 또 다시 묻는 질문,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중등우리교육 2001년 10월호.

서덕희 (2006).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덕희 (2008). 홈스쿨링을 만나다. 서울: 민들레.

- 신차균 (2006). 학교교육의 공공성, 공교육 그리고 학생의 이익 고려. *교육논총* 26(2): 67-93.
- 신현석 (2006).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57-58)
- 심정보 (1995). *교육윤리학입문*.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오영교 (2005). *조선후기 사회사연구*, 혜안.
- 이운미 (2006).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59-72)
- 이은선 (2003).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공공성'에로의 교육, *교육철학 제29집*.
- 이종대 (2006).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 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 33(3).
- 이혜영 (2000). 한국의 홈스쿨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6(1): 109-134. 한국평생교육학회.
- 정민승 (2002). 사회교육의 합리적 핵심으로서의 공공성 분석, *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 정운섭 (2003). 녹우당 해남윤씨가의 가학과 예술의 성격,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2006). *명재 윤증의 학문연원과 가학*, 예문서원.
- 황규호 (2006).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2006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 73-81)
- 황의동 (2003). 명재유학의 가학적 연원에 대한 연구,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33집.
- 劉永翔, 王培軍 (2002). *家學淵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Apple, M. (2000). Away with All Teachers: the Cultural Politics of Homeschooling.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10(1), 61-80.
- Illich, I. D.(1970).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 MacIntyre, A.(1981). *After Virture*. Nortre Dame: Duckworth.

* 논문접수 2008년 5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5월 30일 / 2차 심사 2008년 6월 10일 / 게재승인 2008년 6월 20일

* 서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BK21 역량기반교육혁신 연구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안교육, 지역교육,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질적연구 방법론 등이며 논저로는 「홈스쿨링을 만나다」,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여유: 교육적 의미: 홈스쿨링의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이 있다.

* e-mail: arteel@chosun.ac.kr

* 지정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BK21 역량기반교육혁신 연구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서양교육사, 교사사(教師史) 등이며, 논저로는 「한비자의 도덕교육론」, "조선전기 교육진흥책 분석: 교관정책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교사선발제도" 등이 있다.

* e-mail: joanchen@naver.com

Abstract

Understanding the idea of Homeschooling in terms of Autonomy and Publicity in education: In reminiscence of 'Ga-Hak(家學)'

Deokhee Seo* · Jeongmin Chi**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dea of homeschooling in terms of autonomy and publicity by contrasting its practice with that of 'Ga-Hak'. The most research on homeschooling has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autonomy in education. However, the manifested modes of autonomy in homeschooling practice vary according to how homeschoolers try to construct educati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On the one hand, homeschooling is practised as the movement to make all the relationship educational. On the other hand, it is exposed to such limitations as the lack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tradition, and the degeneration into passive consumer of various learning programs and camps evoking the confused concept of self. In this vein, this study maintains that in 'Ga-Hak' 'Ga-Uisik(家意識)' constructs the concept of relational self, not that of individual self, within the educational network of 'Ga-Mun(家門)'. Also, it argues that autonomy in homeschooling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practice of each individual family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omeschooling, but be manifested within its harmonious relation with publicity, which means assuming voluntarily the educational attitude towards others. Finally, it emphasizes that educational experiences of harmony between autonomy and publicity within home are most critical to realizing the idea of education for all, because home is a fundamental place of self-formation.

Key words: homeschooling, Ga-Hak(家學), autonomy, publicity, concept of relational self

* Chosu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